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NO.21
2010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

Contents



04	theme	잘못된 공동체 의식, '동반자살'에 대하여
10	생명의 나무	깨질 수 밖에 없는 만남
12	아름다운 사람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정신재활팀장 김수영
14	csp network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그곳에 닿으면, 소중하게 꿈을 키우고 있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16	csp cafe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세요.
17	csp junior	희망을 담은 지킴이 사진전
18	csp zone	당신은 마지막 인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20	review	in the movie - 표상의 거짓이 내면의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영화 '우리 의사 선생님(Dear Doctor, 2009)' in the place - 제주가 들려준 시(詩)
24	csp 상담실	2010년 1월~6월 통계 상담사례 분석
26	happy suwon	치매 조기검진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7	csp news	

편집자의 글

누군가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두려울 수도 없고, 배고플 수도 없는 걸 생각하면
개인에게 닥친 큰 문제일수록 더욱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고 싶다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든 나눔으로써 함께할 수 있다면 크기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표지설명

제주도의 우도 사진.
시골벽적 여름 해가 지나고, 짙은 남색의 밤이 찾아오면
책을 열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010 봄·여름호 통권 21호 발행일 2010년 7월 31일 발행인 이영문 발행처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34-3 Happy 마음터 3층 / www.csp.or.kr /TEL.(031)228-3279 기획·편집 권선영·서청희 디자인·인쇄 셀러드 밝은아침 명조 /TEL.(031)257-8173



Theme

잘못된
공동체 의식,

동 반 자 살

글_ 김희주(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국장)

에 대하여

▶ 동반자살?

최근 언론을 통해 '동반자살'이라는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위 '동반자살'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살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행해지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경우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모두 '동반자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동반자살(同伴自殺)'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동반(同伴)'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따위의 행동을 할 때 함께 짝을 함. 또는 그 짝'이라는 의미로써 '자살'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할 때 어감상 부정적(否定的) 느낌이 감소되고, 반대로 이상적(理想的)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자살하는 경우 단순히 '동반자살(同伴自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사건의 내용, 형태, 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첫째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살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행해진 자살의 경우 '공모(共謀)에 의한 자살'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가족동반자살'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구분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로 '존속살해'로 규정하여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가족 모두 자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를 함께 결행하여 자살하였을 경우에는 '일가족 자살', 또는 '가족이 함께 자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 공모(公募: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가 아닌 '공모(共謀: 둘 이상이 같이 일을 꾀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야 함.

▶ 우리나라 현황

다른 나라에서도 이른바 ‘동반자살’이라는 형태의 자살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유독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정확한 통계자료와 문헌적 증거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과거 사이버종교에서 그릇된 종교적 행위로 ‘집단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 우리나라도 유사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그러한 사례는 손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위스의 Dignitas라는 안락사지원 전문병원에서 영국 백만장자 부부가 함께 찾아와 동반자살을 했다는 것과 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서구 사회에서 동반자살은 생소한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동양권 국가들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 원인이나 통계수치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자살 사망 통계를 주관하는 통계청, 경찰청 모두 이러한 자살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국가간 정보교류 또한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동안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정부, 그리고 단체, 기관들이 기울인 작은 노력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재의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

▶ 인터넷 동반자살

지난 2005년부터 협회는 인터넷을 통해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자살방법을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넘어 자살을 부추기거나 합리화하는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포털사의 지식검색, 게시물, 블로그, 카페 등을 모니터링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살 공모, 자살방법 소개, 자살도움 글, 독극물 판매 등 자살 사이트 및 유해정보 등을 차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인터넷 자살 공모 게시물]

The screenshot shows a forum post with the following details:

- Topic:** 동반자살 하실분 오늘 6시까지 꼭지 주세요.
- Author:** 한줄메모장
- Date/Time:** 08.07.27 18:00
- Content:** 동반자살 하실분 오늘 6시까지 꼭지 주세요. (If you want to do a companion suicide, please send me by today 6 PM.)
- Replies:** 2
- Views:** 10
- Buttons:** 신고 (Report), 답변 (Reply), 좋아요 (Like)

2009년부터는 인터넷상 유해정보를 조기에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함께 ‘자살위험 없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 8,341건을 발견, 포털 등에 신고하였다.

금년에도 7월 12일부터 7월 25까지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884명)’와 협조하여 ‘제2회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에 통보하여 지속 관리하고, 필요시 해당 포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자살방조·독극물 판매 등 현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된 자살위험자에 대한 예방 및 구호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와 163개 ‘광역·지역정신보건센터’를 연계,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매뉴얼에 따라 방문·내소·전화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가족내 동반자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자녀가 의사 결정권이 없는 유아나 신생아 또는 아동 등에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부모의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살인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또 발생하였다. 이와같은 행위는 부모가 마치 자녀를 권리가 없는 종속적 개념의 소유물로 판단하고 저지르는 행위로 이는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살인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2007년 7월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더는 부모들에 의해 어린 생명이 숨지거나 유기된 것을 방지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사회와 정부의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포럼을 통해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부모가 없는 막막한 현실에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어 자신이 거두어 가는 것이 아이에 대한 마지막 배려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부모의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둘째, 가족 모두를 공동 운명체로 받아들이고, 부모가 죽어야 하는 경우 자식도 같이 따라 죽어야 한다는 지나친 가족 중심주의, 가족 일체주의를 배척해야 한다.

셋째, 아동은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부모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당시 아동의 그 정서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부모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정말로 잘못된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부모 스스로가 깨우쳐야 한다.

넷째,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행위는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 개인이 아닌 모두의 문제

경찰청에 의하면 2009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수는 14,579명으로 2008년보다 20%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으로 4위에 해당한다. 이제 더 이상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생을 마감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범사회적, 범국가적인 제도와 정책 또한 매우 절실한 때이다.

깨질 수 밖에 없는 만남

사랑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시작할 때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엉켜 아프고,
시작한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알고 싶어서 부대끼고,
사랑이 끝날 땐 그 끝이 갈지 않아서
상처 받는다.
사랑 때문에 달콤한 것은 언제 일까?
그리하여 사랑은 늘 사람을
아프게 한다.

- SBS 드라마 <연애시대> 중에서

그럼에도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매번 반복되는 상처에 익숙해 질 수 없다 해도 우리는 또 사랑을 한다.
만남에서 시작된 사랑은 헤어짐으로 '멈춘다.'
그럼 사랑의 '끝'은 언제일까?
한번 사랑이 멈춘 시점, '이별'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자.

만남과 헤어짐이 연속되는 삶 속에 이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만남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만남이 절대적인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열정적인 감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꿈꾼다. 하지만, '만남'에서 '인연'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필자도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다. 한 여인을 만나 소위 말하는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 만남의 초기에는 희망과 실망이 연속으로 교차하는 순간 속에서 애간장을 태우며 그녀의 관심을 기다려야 했다. 그녀가 드디어 내게 관심을 보이면서 만남이 지속되었고, 나는 둘만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즐거운 시간에 취해있었다.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의 만남이 채 한 해를 넘기도 전에 그녀의 불명확하고 일방적인 이별선언을 끝으로 깨져버렸다. 나는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상실 된 것 같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마음의 고통이 가시고 새살이 상처의 흔적을 덮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녀와의 이별로 인해 내 안에서 일어났던 상실감과 분노 또는 실패의 감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별 뒤에 겪는 유해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날 이성교제의 형식을 제공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빠른 서구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결혼을 이상화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그렇다 해도 가족의 정치·사회·경제적 이해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 오히려, 결혼적령기의 개인은 가족의 정략적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성과의 만남을 강요받는다. 더불어, 사랑이 결혼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이상향의 문화를 따라야 하는 부담감까지 더해져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넓게 보면, 높아진 개인의 자유의지는 마치 자신이 가진 사회적, 개인적 특성들을 결혼시장의 좌판에 내어놓고 이상형의 상대를 유혹해 일생일대의 거래를 혼자 힘으로 성사시켜야 하는 모양새다. 시장에서 개인의 가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과 인격이 어우러져 형성하는데, 그러한 가치들은 등급이 매겨져서 비교 평가된다. 이처럼 극도의 물화와 개인주의화가 만연된 시장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비교 평가되느냐에 따라 감정들의 파고를 경험해야 하니 그들이 현대사회에서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돌이켜 보면 필자의 이별 후 아픈 경험은 이러한 시장의 영향력 때문인지 모르겠다. 예쁘고 지적이며 모든 것을 갖춘 듯 한 그녀를 나의 이상형이라 생각했다. 아니, 자신의 낮은 시장가치로 훌륭한 구매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위로부터 인정받아 자부심을 한층 올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나이가 더 이상 시장의 파고에 자신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여긴게 아닐까?

결국, 내가 사랑한 대상은 한 인간이 아닌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했다. 나의 부족함을 그녀를 통해서 채우려 했던 만남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진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 걸만 보고, 속과 겉은 일치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아픈 경험은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사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또한, 자기를 사랑할 수 없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음도 깨달았다.

내 속에 휘몰아친 이별의 상실감은 일생일대의 거래가 잘 성사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특별한 만남을 절대적인 것으로 영원히 지속시키려했던 나의 욕구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슬픔과 분노 대신 그녀의 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을 것이다. 그녀와의 이별은 큰 아픔이었지만 내게 필요했던 성장을 가져왔다. 그로 인해, 나는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나의 길을 떠날 수 있었다.

B. C. Ben Park (박 병철)

열정으로 희망의 페달을 밟는 그녀,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정신재활팀장 김수영을 만나다.

글_조현선(csp교육담당/hyunsun0629@nate.com)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직설적이고, 워커홀릭이며 조금은 다가가기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만난 그녀는 솔직했다. 그리고 여린 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열정적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최근에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자전거여행을 기획하셨다고 들었어요. 자전거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2008년에 처음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어요. 올해는 6월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 동안 경기도청을 시작으로 해남 땅끝 전망대까지 533km를 이동하는 여행을 했어요.

경기도청에서 출발하여 1번, 13번국도를 타고 해남까지 이어지는 길을 하루에 적게는 88km, 많게는 114km까지 정신장애인 11명과 실무자 그리고 지역사회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총 41명이 어울려 함께 자전거로 이동했어요.

자전거여행을 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만들어졌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 정읍으로 가기 전에 2단 오르막길이 있었는데, 놀이기구 후륜라이드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코스였어요. 회원분들 모두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천히, 계속, 묵묵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회원분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며 혼잣말을 하시기에 환청이 들리는지 알고 휴식을 권하려고 했는데 환청이 아닌 자신에게 “힘내라! 힘!” 자기암시를 하며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났어요. 회원분은 그 말에 정말 힘을 얻은 듯이 오르막을 올랐고, 먼저 올라간 선두그룹 모두 박수를 치며 격려했어요. 그곳에 함께 있던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자전거를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정신
페달을 움직이고 같은 곳을 향해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이란 없다.
같은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면 된다”

“도전, 행복? 어렵다.
도전+행복=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것”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도전과 행복은 어떤 건가요?

- 도전은 또 하나의 후퇴라고 생각해요.

도로의 오르막과 내리막은 인생과 닮아 있어요.

자전거 여행이라는 도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러 오르막, 내리막의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전거 여행 후에 행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행복이란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느린 페달로 오른 오르막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해 행복을 느낀 사람들처럼..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그곳에 닿으면, 소중한게 꿈을 키우고 있는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춘천지역정신건강네트워크를 가다.

글_백민정(csp교육담당/mj831@hanmail.net)

춘천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겹쳐진다. 호반의 도시, 닭갈비와 막국수, 춘천 가는 기차, 소양강, 하이킹... 강원도에 속해 있어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웬지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친숙하다.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수려한 경관, 삶 혹은 죽음을 붙잡는 모호한 도피처의 느낌이 강해서일까. 동반자살이 유독 많이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일들도 있었다.

그곳 춘천에,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춘천지역정신건강네트워크를 만들었다. 10년 전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촘촘한 정신건강 그물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춘천지역정신건강네트워크는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지역사회지지체계(Community support system)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 자살예방사업 실행, 각 기관과의 연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네트워크의 이강(정신보건사회복지사/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존의 정신건강기관과는 다른 형태로 시작된 본 네트워크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기에도, 구상하여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보편적이고, 선택적이며 집중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포괄적으로 개발해내는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자살예방사업에서는 게이트 키퍼 시스템 Gate keeper system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키퍼 시스템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로 참여함을 통해 자살의 고 위험군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게이트 키퍼들이 지역에서 자살의 고 위험군에 해당되는 주민을 선별하여 춘천지역정신건강네트워크에 의뢰를 하면 협력 작업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하는 시스템이기에 기존의 자살예방관련 기관들에 비해 보다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네트워크란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통합과 협력,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혼자서 하면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현실이 된다 했지만 실상 각자의 영역에서 그것을 조화롭게 이루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춘천네트워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어떤 것일까?

“정신장애는 개인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 상호작용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네트워크(Dynamic network)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영문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의 말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강대표는 WHO의 권고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의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접근은 다학제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한 분야, 한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생각함으로써 서로를 잘 이해하고 긴밀한 협력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들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일까? 네트워크라고 하니 일곱 빛깔의 무지개처럼 다양하고 커다란 꿈을 꿀 것만 같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넓디 넓은 캔버스의 유화처럼 화려하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가꾸어나가며 누군가가 꿈꾸고 있을 그런 것이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서로 돌보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춘천 네트워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입니다.”

산다는 것이 고단하고 힘에 부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살고 싶은 개인들이 모여 살고 싶은 사회를 이루는 그곳이 그들이 꿈꾸는 그곳, 춘천에서 시작되기를 바래본다.



위 - 생명지킴이단 발대식
 아래 - 이강 대표(춘천지역정신건강네트워크)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세요.

글_정소희(csp 상담자원봉사자)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지로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학교과제를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고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나 자신도 변화한 것을 느낀다. 내가 자원해서 하고 있는 일은 실시간 상담과 전화 상담이다. 내가 가장 많이 접한 연령층은 10~20대인데, 그들의 고민 중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인관계의 문제이다.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정작 기댈 수 있는 가족에게는 외면받기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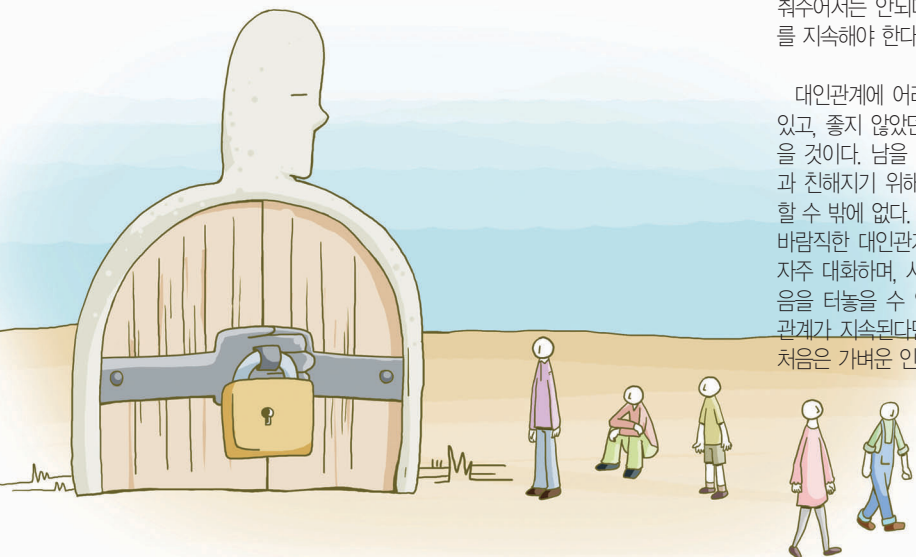
유학생의 경우 외국으로 나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친구를 사귀기란 쉽지 않다. 같은 처지의 한국 유학생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미움이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의 고통은 더 심하다.

대학생의 35%가 자발적인 '아웃사이더'(Outsider, 외부인)라고 한다. 이들은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과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주의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사기를 다짐하는 학생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학생활이 사회로 나가기 전 집단생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일 길 자처하는 학생들이 애처롭다.

핵가족화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족 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부모, 형제보다는 또래친구들 간에 친밀감이 형성된다. 그런데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무도 그 청소년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모님은 자녀와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성관계에서는 서로의 차이와 이해 부족, 의심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이는 남녀 간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끌려 다니거나 맞춰주어서는 안되며 서로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남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았던 이전의 대인관계 때문에 쉽게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남을 믿지 못하거나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 지금 이대로 혼자 있을 것이냐'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관심사를 갖고 있고, 자주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대인관계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처음은 가벼운 인사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희 망

을 담는 지킴이사진전

글_조현선(csp교육담당/hyunsun0629@nate.com)

아름다운사람지킴이 11기가 많은 시민들과 함께 삶의 행복과 희망을 공유하기 위해 사진전을 열었다!



힘들었던 사진전 준비와 자살예방캠페인을 잘 마무리한 11기 지킴이들! 함께 희망을 담고,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키워갔다.

“당신은 마지막 인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글 권선영(csp홍보담당/letterinbye@naver.com)

지난 5월 17일~18일 아주대학교정신건강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시민참여교육 및
위기상담원 모집교육’이 있었다.

이 교육은 자살위기 상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실무자에게 자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자살위기상담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원 관내의 일반인과
실무자 30여명이 이틀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였으며, 추후 상담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신청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살위기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담이론을 이해하고 다양
한 기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정도를 파악하
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을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일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자살위기상담을 하면서 상담자
스스로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은 나는 자살에 대해 어떠한 입
장을 취하고 있으며 나 역시 그러한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떠
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정답이란 없지만 각자의 건강하고 확고한 신
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무엇의 힘이 아닌
‘나’라는 도구를 통해 힘에 겨워 쓰러지려는 누군가를 붙잡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은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을 넓은 각도에
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과 실제 상담시 필요한 기술
을 다루는 시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이영문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의 ‘인문학 속 자살보
기’와 소설 <마지막 인사>의 저자 이건영 님의 <마지막 인사>
에 나타난 우리 삶과 죽음의 자세’를 통해 상담자 자신의 삶
또는 죽음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인사>

이건영 / 2009년 / 휴먼앤북스

주인공 진호는 암 환자를 다루는 의사이다.
생명연장을 위한 처치가 어려운 환자와 아내를 보며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존엄사를 돕는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도 암세포가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하는 이들의 심경과 의료현장의
모습이 생생히 묘사된 작품.

둘째날은 <위기 상담의 실제>, <게시판 상담의 실제>, <전화
상담의 실제>로 나뉘어 각각의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와 상담의 특징, 상담가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상담 윤리
등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된 공부는 오늘을 살아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이다. 끊임없이 나를 채
우고, 또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만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
면서도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자신에게나 상담가로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
색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상의 거짓말이 내면의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영화 '우리 의사 선생님(Dear Doctor, 2009)'



글_이영문(csp센터장/humanishop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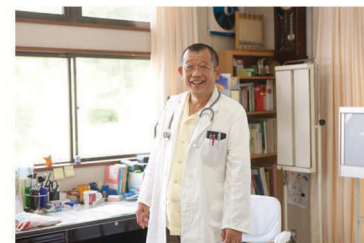
거짓말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를 우리는 건너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보통사람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거짓말에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개체발생의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 그 목적입니다. '거짓말의 발명' (Invention of Lying 2009)이라는 영화는 그 거짓말의 탄생을 유머러스하게 그립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려는 일본의 신예 여성감독 니사카와 미와가 만든 '우리 의사 선생님(2009, Dear Doctor)'은 우리에게 진실과 거짓의 구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이기를 바라라는 것을 묻는 영화입니다. 잠시나마 한적한 시골마을의 명의로 살아가던 이노(쇼후쿠데 이 쓰루베 분, 일본의 국민배우)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실종된 의사 선생님인 '이노'가 온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는 그날 오후부터 마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자신들의 병을 누가 돌봐주냐고 한탄합니다. '이노'의 참된 의술에 감동받

은 젊은 의사 '소마'는 자신도 '이노'처럼 시골의사가 되어 마을사람들을 지켜가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노'는 의사의 아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의과대학을 졸업한 진짜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가 아닙니다. 4년간 이 마을의 명의로 살아 온 그것기에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예상되지만, 미와 감독에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일은 정작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는 현실에 대한 몽환적 진실을 살짝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기 정당화 혹은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심리학적 견해를 비틀어 사람들의 의식이 마비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현재 바라보는 것이 모두 진짜라고 믿는 것은 아닌가? 실루엣처럼 느껴지는 한 가닥 진실이라는 것도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가짜는 아닌가? 정작 가짜 의사와 진짜 의사의 경계는 무엇인가? 2시간이 넘는 상영시간 동안 관객들은 '이노'가 펼친 4년간의 인간에 대한 헌신과 애정이 의사면허증의 유무로 가짜로 구분되는 것이 못내 아쉽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극적으로 그가 진짜 의사였으면 합니다. 이 영화를 저는 의사인 아내와 같이 보았습니다. 텅 빈 객석에 의사 2명이 관객으로 앉아 있고, 스크린에는 진짜 의사를 연기하는 2명의 남녀가, 그리고 가짜 의사지만 진짜보다 더한 인간애를 지닌 '이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영화에서 두 명의 진짜 의사들은 가짜 의사 '이노'를 통해 의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의료의 본질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현실을 보고 본래의 직업적 소명을 찾아가는 동화와 같은 착각을 합니다. 객석에 앉아 있던 현실의 한국인 의사 2명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드물지만 어떠한 행위의 진정성을 위해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존재한다'는 명제는 거짓말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노'가 필요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사로 만들어 갔고, 그는 헌신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힘이 긍정적 필요성에 의해 보존되어 온 것이라면, 미움, 악, 거짓말 또한 다른 필요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짓말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부끄러움이 동반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깨닫고 부끄러워 할 수 있고, 그 거짓말을 교정할 신념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영화 속 '이노'는 분명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나 진실과 거짓은 공존합니다. 절대 진리와 표상의 거짓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를 권합니다.



제주가 들려준 시(詩)

글_최소라(csp상담담당/pssora@nate.com)



그녀들과 함께 맑고
푸름을 만끽하다



세상은 벚꽃의 흥남림으로 치장하다

지난 4월, 매일을 함께하는 나의 일터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제주를 만끽했다.

세상은 온통 벚꽃의 날림과 유채꽃의 흔들림으로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우리를 만들어주었다.
우도에서의 에머랄드빛 바닷물은 금방이라도 인
어공주가 고개를 들고 인사를 할 것만 같았고, 올
레길을 걸으면서 인생은 이렇게 혼자 그리고 다
같이 걸어감의 연속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금방이라도 인어공주가 손을 흔들며 고개를 내밀 것 같은 에머랄드 빛 바다



흠뻑 젖었음을 증명해주는 세자매의
인증샷!



흐리다고.. 희미해졌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빗물의 비침이 거울 같아

그러나 한 달 만에 가족과 함께 다시 찾은 제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바다 위 먹구름 사이로 매정하고 차가운 비가 내리고, 섭지코지의 올인하우스도, 우도의 등대도 보
이지 않았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도 보이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제주의 풍광 대신 이
색 박물관들을 관람하고, 특색 있는 음식을 먹으며 또 다른 제주를 경험했다.



눈부시게 푸른 제주와 온통 비로 적셔진 어두운 제주.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네 삶의 모습도 그렇게
아닐까 생각했다.
마냥 평화롭고 좋은 것만 같은 시간이 불쑥 슬픔으로
변하거나,
어제의 불운하고 우울했던 일들이 오늘에는 전화위복으
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희노애락의
일들로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까?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묵묵히 때로는 운명으로
그때의 감정을 느끼며 '나의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방울방울이 더해진 비오는 제주그림



노란 물감을 풀어 바람에 출렁이는 파도를
칠하다

상담사례 (30대 여성)



전 정말 휴~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외모 콤플렉스로 성형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지금도 이상해요.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입원까지 생각 해봤지만 **ㅠㅠ** 모든 것이 다 싫어요.
마음이 바뀌어야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TV 속 연예인들은 정말 다 이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생겼는지.. 무시당하기 싫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성형수술을 했어요.
이제 망가져 버린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이유가 없네요.
상담 받아 봤자 '마음먹기에 달렸' 다 똑같은 말만 계속하고,
저는 얼굴만 바뀌면 다시 자신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눈만 감으면 옛날 안 좋았던 기억이 나를 정말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나마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죽어서도 지옥 같은데서 힘들기 싫거든요.



주신 글을 읽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만 가치를 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늘 외롭고 부족하게만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본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성격과 취향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습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아름답고 매력 있게 보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발전과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는 스스로를 더욱 만족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님, 자존감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해놓은 다른 것들, 다른 사람이 인정한 다른 것들을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님이 가진 장점은 보지 않으시고 단점만 크게 바라본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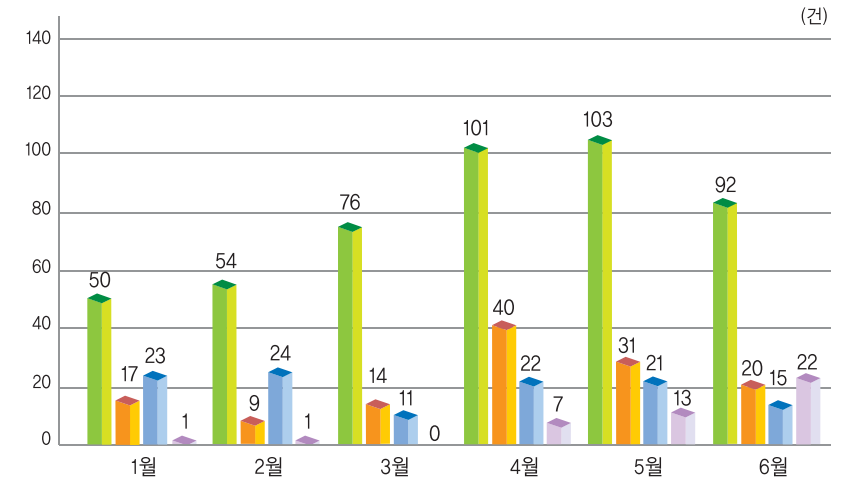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특기나 우월한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님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고 자신이 없는 것만 생각한다면 자신만큼 불행하고 초라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땐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 번의 성형수술이 님에게 커다란 상처와 슬픔, 후회와 자책감을 가져다주었을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안 좋았던 기억에서도 벗어나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는 마음이 님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을까요... 한참 젊고 활발할 시기에 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님에게 상처주었던 사람들, 아마 그들도 모두 콤플렉스나 상처는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아픔이 타인을 아프게 하고 오랫동안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아마도 잘 모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이 세상도 많이 그러하니까요. 하지만 님, 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것에 그리 상처받거나 오랫동안 가뒀두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역시 나의 몫이기도 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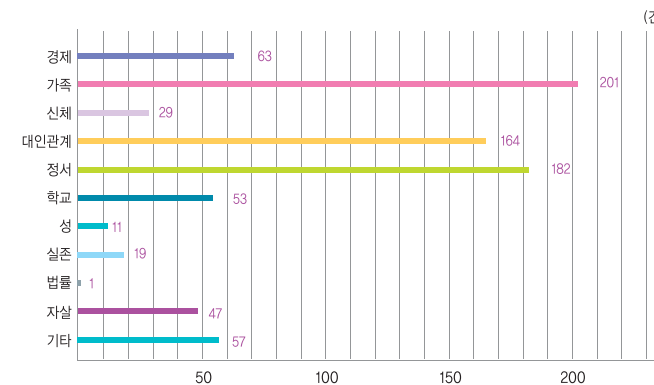
님이 경험했던 긍정적이고 좋았던 부분들도 과거 안에 공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결정됩니다. 님, 조금만 용기를 내세요. 타인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할때 우린 늘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고 힘든 자신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힘들 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월별상담유형

게시판
전 화
실시간
내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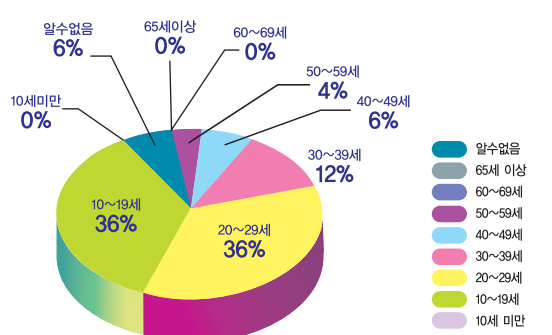


주요 상담내용



* 상담 내용은 복수 체크가 가능함.

연령별 상담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치매 조기검진으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수원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1단계	선별검사(MMSE-KC, K-MMSE)	무료검진
· 시 기 : 연 중 (월~금 / 09:00~17:00)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거점병원 (검사비지원)
· 검진방법 : 감별검사 완료 후 치매 진단자 중 저소득층은 치매치료비 지원	3단계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거점병원 (검사비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매로 진단받아 치료받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어르신 ※ 치매 진단 상병코드(F00~F03, G30)
- 신청시기 : 2010년 4월~12월 (월~금 / 09:00~17:00)
-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전국가구 원평균소득50%)	654,000	1,197,000	1,689,000	1,956,000	2,126,000
보험료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17,581	31,980	45,270	52,706	56,786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 지원수준(연간) : 진단서 발급비 포함(1회 15,000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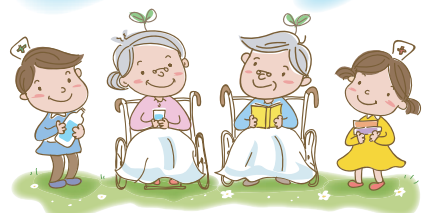
구 분	의료급여중, 차상위C	의료급여2중, 차상위E, F	건강보험
지원금액	33,000원	150,000원	285,000원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사본, 치매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신청장소

수원시노인정신건강 I 센터 : ☎253-5737 (장안구, 권선구 주민)

수원시노인정신건강 II 센터 : ☎273-7511 (영통구, 팔달구 주민)



제2회 수원시정신건강국제학술대회



작년에 이어 제2회 수원시정신건강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한중 풍부하고 폭넓은 주제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시민과 전문가들 약 2,000여명이 모여 '정신건강, 함께 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8개국의 석학들이 모여 각 나라의 정신보건 사업과 연구들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류하였으며, 특별히 미국 펜실바니아주립대학의 B. C. Ben Park, 일본 후생성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의 Tadashi Takeshima, 한국자살예방협회 홍강익, 국립서울병원의 남윤영 선생님을 모시고 '자살예방: 개인과 사회의 연대'라는 제목의 자살예방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지킴이 만족도 평가

2005년에 시작한 중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아름다운사람지킴이'가 11기까지 수로가 되어 총 176명의 아름다운사람지킴이가 되었다. 또한 1기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내년도에는 아름다운사람지킴이 지도교사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그동안 배출한 지킴이와 학부모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7월~8월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앞으로 더욱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양성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제4회 Love Yourself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 개최

매해 수원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Love Yourself 자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의 당선작이 가려졌다.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작품 총111점(포스터 56점, 표어 55점)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7월 22일 최종심사가 있었다. 수원시장상, 수원시교육장상, 경기방송사장상을 비롯한 17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심사평으로는 새로운 세대다운 언어구사력이 나 신선한 느낌의 작품이 있었지만, 예년과 반복되는 작품이 많아 다양한 장르의 공모전에 대한 의견이 제언되었다. 심사에 이어 8월 2일과 4일에는 당선자들의 인터뷰가 있었다. 시상식은 9월 7일 장안구보건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상반기 교육

달	기 관 명
1월	조원중학교
2월	조원중학교, 수원공군부대, 법무연수원, 서대문노인자살예방센터
3월	서울구치소, 강남노인복지회관, 원당중학교
4월	영복여자중학교, 춘천대사회교육원, 법무연수원
5월	수원중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서울구치소, 강남노인복지회관, 영복여자중학교
6월	영복여자중학교, 이충고등학교, 악수노인복지회관, 수원시장안구노인정신건강센터, 상촌중학교, 대명고등학교,
7월	상곡초등학교, 고골초등학교, 방승고등학교, 탄벌중학교, 발안중학교, 강남노인복지회관